

성도의 벗 10
1982





18



7



9



38



40

성도의 벗 10

1982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차 례

대관장단
스펜서 더블류 킴본
앤 엘튼 대너
매리온 지 롭니
고든 비 힝클리

십이사도 평의회

에스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리그랜드 리차즈
하워드 더블류 헌터
토마스 에스 문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케이 애쉬튼
브르스 알 맥몽키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레이프
제임스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고문

엠 러셀 벨라드 이세
로렌 시 던
렉스 디 피네가
찰스 에이 디데이
조지 피 리
에프 엔저오 부쉬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두려워 하지 않습니다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1
폴의 호박	더블류 폴 하이드.....	7
질 의 응답		9
의로운 영혼의 영적 조각품.....	닐 에이 맥스웰 장로.....	12
어름이 없는 해	피터 케이 벨빌.....	18
십일조에 관한 네가지 단상.....	글렌 레이덤.....	20
초콜렛 케이크	에스터 무어 브라운.....	23
타피 아이스 카	레이 마호니.....	25
더 빨리 더 높이 더 힘차게.....	로버트 엘 백맨 장로.....	28
조지 앨버트 스미스		39
친구가 친구에게	줄린 메레디스.....	41
마리아와 사프란 꽃.....	마릴린 나이토.....	43
지역 지도자 메시지	박 하천 광주 스테이크 부장.....	46
해의 소식		48
지역 소식		50

성도의 벗 1년 정기
구독료는 3,500원입니다.
일반으로 1권 구독료는
400원이며, 1년에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의 1권 구독료는
800원입니다. 정기 구독자는
특집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와드/지부의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성도의 벗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 권 : 제207호, 제18권 제10호

등 록 : 1967년 10월 4일, 라-932

발행일 : 1982년 10월 1일(월간지)

발행인 겸 편집인 : 유진 피 릴

번 역 : 한국 번역 출판부 ☎ 724-6832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 구과 514091

인쇄인 : 삼화인쇄주식회사 유진수

STOCK NO. PBMA0471K0 PRINTED IN SEOUL, KOREA 10/82 International magazine

© 1982년
제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관련 소유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얼마전, 저녁 시간에 잠시 한가한 틈을 내어 나는 텔레비전의 뉴스 프로그램을 시청했습니다. 뉴스마다 이 세상의 갖가지 분쟁과 비극과 억압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나는 텔레비전을 끄고, 거실의 피아노가 놓인 곳으로 걸어가 찬송가를 집어들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오래 전에 팔리 피 프랫이 쓴 찬송가의 가사를 읽었고 그것은 마치 나의 감정의 메아리와도 같았습니다.

오래 기다리던 만왕의 왕 오셔서
당신의 품안에 고이 품어 주소서.
만국 소망 주님이여
이스라엘 모으소서.

불로써 죄 태워 정결케 하옵소서.
또 의를 주셔서 찬송케 하시고

기쁜 찬송 주께 드려
천지에 크게 퍼지리.

〔“오래 기다리던 만왕의 왕”, 찬송가, 24장〕

주께서 다시 오시리라는 사실을 나는 확실히 알고 있으며 또 확신하고 있습니다. 교회 본부 사무실 건물 로비의 동쪽 벽에는 아름답고 인상적인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그것은 부활하신 주께서 열 한 명의 사도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전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이 장차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에 관해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서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인류 역사의
어떠한
사건도
주님의
재림시에 있게 될
두려움에
비견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 : 9-11)

나는 또한 주께서 두번째로 강림하실 때에는, 절정의 시기에 오셨던 것과는 달리, 영광 중에 오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위대한 여호와이셨으며, 지구의 창조주이시며, 고대의 예언자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신 주님은 처음에는 유대땅 베들레헴에 있는 구유에서 아기로 태어나 지상에 오셨습니다. 그는 팔레스타인의 흙먼지 길을 다니시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 (이사야 53 : 3)였습니다. 그는 악인의 손에 잡혀 끌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박히셨습니다.

이제 이 경륜의 시대에 주님은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권능과 큰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올 때가 가까왔느니라.

“내가 오는 때는 큰 날이 되리니 모든 나라가 떨 것임이라.

“그러니 저 큰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피빛으로 변할 것이요, 별들이 제 빛을 잃으며 더러는 떨어지리니, 큰 멸망이 악인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교성 34 : 7-9)

위에 인용한 구절에서 “모든 나라가 떨 것임이라”는 말씀이 내 호기심을 자아냅니다. 거만한 사람과 막강한 위세를 떨치고 있는 강국들은 스스로를 무적의 존재로 생각하고 있겠지만, 그 지도자들이 역사를 충분히 읽지 않은 탓이

겠습니다.

내가 영국에서 선교사로 봉사한 것이 벌써 40년도 더 되었습니다. 당시는 대영 제국이 위세를 떨치던 시대로, 실제로 영국 땅에는 해가 지지 않았으며 영국 국기가 지구상의 4분의 1이 넘는 지역에서 휘날리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의 세계 평화는 곧 대영 제국의 평화였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대영 제국의 위세는 사라졌습니다. 곳곳이 독립국이 되어 떨어져 나갔으며, 우렁차게 포효하는 사자로 상징되었던 대영 제국은 늙고 병약해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시어 그의 왕국을 찾으실 때 모든 나라가 멀게 되리라는 것을 쉽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 때가 이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같이”(마태복음 25 : 31-32) 하게 됩니다. 그때에 나라만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심판도 있을 것입니다.

“보라, 인자가 올 때까지는 오늘이라 부르리니, 진실로 지금은 회생의 날이요, 나의 백성의 십일조의 날이라. 십일조를 바치는 자는 인자가 올 때에 불에 타지 아니하리라.

“오늘이 지난 후에 불에 타는 때가 오나니……내일 자랑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모두 그루터기같이 되리니, 내가 저들을 불태워 버리리라. 나는 만군의 주라. 바빌론에 남아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살려 두지 아니하리라.”(교성 64 : 23-24)

몇 년 전에 총관리 역원의 한 분이 십일조를 바치는 것은 “화재 보험”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신 일이 있었으며 그 말씀을 듣고 모두들 웃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재림시에 불태워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날은 심판의 날이요 체로 걸러 내는 날이며 선과 악을 구별하여 갈라놓는 날입니다.

내 개인의 견해입니다만 인류 역사 어떠한 사건도 주님의 재림시에 있게 될 두려움에 비견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비교될 수 없는 무서운 파괴의 힘이 이 지상의 여러 나라에 미치되 간악한 자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두려움이요 의로운 자에게는 그지없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천지가 뒤집어지고, 슬퍼하며 이를 갈게 되고, 때늦은 회개를 하며, 주님께 자비를 울부짖어 구하는 크고 두려운 무서운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에서 인정받는 자는, 주께서 천사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그와 함께 있었던 사도들과 부활한 자들과 함께 방문하실 것이므로, 주께 감사를 드리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의인의 무덤이 열려 그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교성 88 : 97 참조) 그런 다음에는 천년간의 위대한 복천년(교성 43 : 30) 시작되어, 사탄은 결박되며(교성 43 : 31) 주께서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제 20 : 6 참조) 악마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게 되는 시대의 놀라움과 아름다움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지금 세상에 위세를 떨치는 악마의 영향력을 생각해 보고, 그러한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 시기의 평온을 생각해 봅시다. 지금 분쟁과 사악함이

자리잡고 있는 이곳에 고요한 평온과 선이 깃들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모든 것과 경전에 기록되어 있는 보다 자세한 내용을 더욱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을 되풀이하여 앞으로 임할 일에 대하여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과 확신을 각자 되새겨 보아야 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를 알게 되면 매일 복음의 원리에 순종하는 데 필요한 자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복천년의 일을 거의 생각하고 있지 않으며, 생각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어느 때에 복천년이 임하게 될 것인가는 도저히 짐작해 볼 수조차 없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직 지상에 있는 동안 주께서 오실 경우 우리가 모두 의롭게 살아 눈 감박하는 사이에 변화되기에 합당하도록 하고, 그 상황에서 필멸의 존재에서 불멸의 존재로 변화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어야 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생활이 그의 가르침에 일치되는 것이었다면, 우리는 부활의 아침에 일어나, 약속된 복천년에 구세주와 함께 생활하게 될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오시는 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왕국을 세우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도록 동기와 기회를 부여해 주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따르기만 한다면 도움이 될 두세 가지 일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예언자 미가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미가 6:8) 이 한 마디 말씀은 긴 설교의 말씀이 되고도 남습니다. “인자를 사랑하며”라는 한 가지 점에 대해서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상호부조회 회장으로서는 사랑의 귀감이 된 젊은 자매의 편지 내용이 훌륭한 본보기가 될 것 같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녀의 글입니다.] 저는 하루 종일 복지 식품을 모아 그것을 분배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 곳을 방문했는데 그중 한 곳의 상황은 참담했습니다. 수년 전에 그녀는 화재를 당해 머리에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그녀는 수술을 받아왔으며 두피를 한테 붙이기 위한 바늘 자국이 수없이 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혼당했으며, 자기 자신과 네 살난 딸을 부양하기 위해 적어도 수술을 완전히 끝내고 학교로 돌아가 영양사로서의 훈련을 끝내기까지는 무슨 일이든지 손에 닥치는 대로 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자동차도 없었으므로 이 크고 번잡한 도시에서 교통 수단으로 오로지 그녀의 자전거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겨울 내내 그 자전거의 뒷 자리에 어린 딸을 태운 채, 하찮은 일거리라도 그곳까지 왕복하기 위해 하루에도 48킬로미터씩이나 달렸습니다.

일주일 전에 그녀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빙판에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떨어져, 머리를 부딪쳐 다쳤습니다. 그녀는 치료비를 뭇 돈이 없었기 때문에 병원에 가기를 거절했으며, 그대로 아파트에서 혼자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그녀의 여동생이 발견하고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그녀의 모친은 그녀를 조금 도울 수 있었었습니다. 그녀의 가정 복음 교사가 우연히 방문했다가 그녀의 비참한 처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상호 부조회 회장으로서 그녀를 방문해 보고는, 집안에 먹을 것도, 그녀의 당뇨병에 쓸 약도, 그리고 돈도 한 푼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는 그녀에게 먹을 것과 몇 가지 약품을 갖다 주었습니다. 것처럼 비참한 처지에 놓인 사람을 위해 봉사한다는 일은 참으로 보람있는 일입니다!

인자를(미가 6:8)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이 왕국의 일을 위해 여러분의 재물을 나누어 주기 바랍니다. (교성 42:31 참조) 이제 여러분에게 어려서는 가난했으나 노후에는 부자가 된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들려 드리겠습니다. 그는 회중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소년 시절이었던 어느 여름날, 알파알파 풀밭에 누워 풀쭈기를 썬으며 하늘을 올려다 보면서 부모님이 말씀하신 하늘의 문은 도대체 어디 있는가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구름 속에서 그것을 찾아볼 수 없었으며, 푸른 하늘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 문이 열려 보이 스카웃 단복과 조랑말과 자전거를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이러한 것을 한 번도 가져 보지 못했으나 내가 속해 있는 이 와드 안에 있는 친구들과 선하고 너그러운 이웃들의 친절하고 배려와 도움을 얻으면서 하늘의 문이 어떻게 열리는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제와 관련하여, 잠시

언젠가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두터운
신임을 받으며
설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기쁠 것인가를
또한
생각해 보았습니다.

“쉬지 말고 덕으로써 네 생각을 장식하라.”

제시의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간단한 계명과 그보다는 조금 더 많은 약속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명은 “쉬지 말고 덕으로써 네 생각을 장식하라.”는 것이고, 약속은 “그리하면 주의 면전에서 네 신임이 두터워지리라.”(교성 121 : 45)는 것입니다. 나는 이 말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미국 대통령과 외국의 지도자와 통치자를 만날 수 있는 특권을 받았는데, 그때마다 그런 분들 앞에서 신임을 받으며 설 수 있다는 확실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언젠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두터운 신임을 받으며 설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기쁜 것인가를 또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은 계속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신은 변치 않는 네 동반자가 되며 네 홀은 의와 진리의 불변하는 홀이 되며 네 다스림은 영원한 다스림이 되어 강제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네 계로 흘러들어가리라.”(교성 121 : 46) 주님이 오시어 체로 가려 내는 위대한 날이 되면 의인과 악인이 완전히 갈라지게 되리라는 것을 덧붙여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교성 63 : 54 참조)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께서 제시하신 말씀을 바탕으로 위의 말씀을 간증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주께서 오시는 크고 두려운 날에 관해서 조금이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도록 지금 이곳에서 생활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와 평안과 힘을 추구하는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그 시기를 알 수는 없으나, 아침이 되면 해가 솟아오르듯 확실히 오실 그분의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하게 간구합니다. 아멘.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1. 복음 원리에 순종하는 중요성에 관하여 개인적인 경험을 말한다. 가족들에게 순종심이 그들의 생활에서 담당하게 되는 면에 대하여 서로 느낀 바를 이야기하게 한다.
2. 이 기사에 들어 있는 인용문이나 성구 중에서 가족이 큰소리로 읽어 볼 만한 것이나, 그들에게 읽어 주고자 하는 보충 성구가 있는가?
3. 가족이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할 수 있는 방법을 토론한다.
4. 헝클리 부대관장이 우리가 주의 면전에서 “신임이 두터워”지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말씀한 것은 무엇인가? 가족들과 함께 이 명령을 그들의 생활에서 더욱 훌륭하게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을 토론한다.
5. 방문하기 전에 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이 토론이 더 훌륭하게 될 것인가? *

폴의 호박

더블류 폴 하이드

“그런데 1불 65센트는 어디서 난 거지?”



오랜 기도와 면밀한 계획 끝에 우리는 새로 스테이크 센터를 짓기 위한 건축 기금 모금 프로그램을 1980년 9월에 우리 스테이크에 제시했다.

건축비가 상당히 고가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필요한 기금을 다 모금하려면 회원들에게서 상당한 신앙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가 그 문제로 고심하고 있을 때, 나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다.

사무실에서 하루 중 한창 바쁜 시간인 오후 2시경에, 비서에게서 폴 굿윈이 나를 만나고자 한다는 전갈이 왔다. 나는 일정표를 점검해 보고, 폴 굿윈과 약속이 없음을 알았다. 게다가 나는 폴 굿윈이라는 사람은 알지도 못했다. 나는 비서에게 일이 바쁘고 또 그와는 약속도 한 바 없으니, 그를 만날 수 없겠노라고 말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폴 굿윈과 이야기해보아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느껴졌다.

산더미처럼 쌓인 일거리를 제쳐 두고, 급히 사무실 문을 연 나는, 밖에 땀살 된 남자 아이가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의 어머니가 대기실에 앉아 있는 것을 본 나는 곧 이 아이가 우리 스테이크의 포 코너스 워드에 나가는 데이비드와 메릴린 굿윈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다. 어린 폴은 문가에서 서서 주머니에 손을 집어 넣은 채, 자신 감에 넘친 표정으로 나를 올려다 보았으며, 나는 그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직감했다.

나는 그를 내 사무실로 데리고 들어왔다. 우리가 자리를 잡고 앉고 보니,

내 책상 위로 그의 큰 눈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자, 굿윈 형제, 왜 나를 보자고 했지?” 하고 내가 물었다.

그는 말없이 호주머니에 손을 집어 넣어서는, 다 꾸겨진 1불짜리 지폐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다. 그런 다음 다시 주머니에서 25센트를 꺼내어 책상 위에 놓고, 또 주머니에서 25센트를 그리고 10센트와 5센트를 끄집어 내었다. 그는 책상에 5센트를 놓은 다음, 나를 쳐다 보고는 “새 건물을 짓는데 써 주세요.” 라고 말했다.

“새로운 스테이크 센터말이나?” 하고 내가 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참 훌륭하구나!” 하고 내가 말했다.

“그런데 1불 65센트는 어디서 난 거지?”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번 여름에 내 발에 호박을 심었어요. 다 익어서 호박을 따서 내 마차에 실었어요. 내가 그걸 가지고 이웃집을 찾아가 팔아서 돈을 모았거든요. 이 돈을 새 스테이크 센터를 짓는데 바치고 싶어요.”

나는 눈물을 참주기가 힘들었다.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린 아이를 품에 안아 올리고 그 1불 65센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가 호박을 팔아 새 스테이크 센터를 위한 기금을 낸 것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즐거워하실 것인가를 말해 주었다.

나는 그때 필요한 그 큰 금액을 모금하기 위한 충분한 신앙이 우리 회원들에게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꼈다. *

질의 응답

다음 대답은 교회의 공식적인 정책이나 교리가 아니고 지침으로 소개되는 것이다.



엘리스 피 라스우슨
브리감 영 대학 전 종교 교육 학장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한
그릇된 사상이나
가치관 및 관습에는
어떠한 것이 있었습니까?

나는 이스라엘 예언자들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성약과 부름을 기억하도록 하는 어려운 사명에 대하여 우리들이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방법에 대하여 가르치고자 했으며 우상을 숭배하는 거짓 추종자들의 가르침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함께 생활하는 자들의 사악한 영향력과 박해를 견뎌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고 수많은 사랑과 자비를 입기는 하였으며 한번도 볼 수 없었던 하나님에 대하여 진실하여야 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나는 고대의 이교도 신전과 무덤을 찾은 일이 있었는데 그때 우상 숭배자들이 그들의 신에게 되풀이해서 구한 주요 “축복”이 불멸, 생명의 번식, 가축과 농업에서 다산을 기원한 것이었음을 알고 상당히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이러한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의 본능적 욕구에 호소한 세속적이고 감성적인 의식으로 간구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같은 축복에 대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요구한 행위 규범은 준엄하고 도덕적이며 영적으로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지역에는 남신과 여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이 비를 내리고, 들판과 가축을 번성케 하며, 상업을 축복하고, 도시를 방어해 준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들은 계절의 주기, 생과 사 등 모든 자연 현상을 주관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여기서 인간은 자기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하여 올바른 신 또는 여신을 경배함으로써 자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제물을 바쳐야 했으며, 심지어는 어린이를 제물로 바치기도 했습니다.

학자들은 오랜 세월에 걸친 고고학적 연구와 고대 문서의 번역을 통하여 고대 인간들 사이에는 의사 소통이 상당히 활발했음을 알아냈습니다. 즉 광범위하게 종교적 개념과 예배 습관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고, 우상 신의 이름과 그 역할도 널리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때로 지방의 어떤 신들에게 마음을 끌리게 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가장 보편적인 우상 신은 바알과 그의 배우자인 아스다롯이었습니다. “하늘의 여왕”이라 불린 여신 아스다롯은 가나안인, 바빌론인, 두로의 페니키아인, 시온과 시리아인 및 기타 다른 지역의 사

람들간에 다산의 여신으로 크게 추앙을 받았습니다. 신비한 생식 권능을 지니고 있는 그 여신에 대한 예배 의식은 성적인 탐닉으로 행해졌습니다. 이러한 관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당히 감각적인 유혹이 되었습니다.

아스다롯의 아들(어떤 경우에는 남편)인, 생장의 신 담무스는 계절의 주기를 다스렸습니다. 담무스의 신화는 여신 아스다롯이 가을에 지하의 세계로 내려가 죽음의 나라에서 남편을 데리고 나와 봄에 다시 생명을 되살린다는 여신 아스다롯의 이야기를 말해 줍니다. 우리는 성경의 예언서 중에 가을 의식의 일부로 담무스를 위해 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록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에스겔 8 : 14 참조)

송아지와 황소 역시 경배 또는 예배 대상이 되었습니다. 때로 그것은 다산의 신이 되기도 했고, 때로는 생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모압의 그모스 신(열왕기상 11 : 7)은 때로는 정치적인 이유일 때도 있지만, 예루살렘에 비치된 우상 신이었습니다. 가사(사사기 16 : 21)와 아스돗(사무엘상 5 : 3) 성의 블레셋의 신 다곤(사사기 16 : 23 참조)은 물고기 신, 곡물의 신으로 성경에 여러 번 언급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장 두려

운 신으로 때로는 놀랄 정도의 많은 이스라엘인들이 마음을 돌이킨 것은 물론 또는 밀곰이라고도 불리운 몰렉(열왕기 상 11 : 7 참조)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왕”을 의미합니다. 어린이들은 불에 태워져, 심지어는 이스라엘 왕에 의하여 그에게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자녀를 몰렉의 불에 지나가게 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가 말한 그러한 것은, 주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번도 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32 : 35, 7 : 31 참조) 왜 이스라엘인은 여호와와의 크신 은덕으로부터 것처럼 두려운 신에게로 마음을 돌이키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급격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동기에서 나온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태양과 별자리는 생산과 안정된 힘의 속성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뜨겁고, 메마른 사막 지대에서, 창백한 달빛은 다른 경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달의 형상은 인생과 생물학적, 농업적 기능의 형상을 나타냈습니다.

성경에서 언급된 가신인 드라빔(사사기 17 : 5)은 토지 소유의 상징이 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필요한 때 또는 고난의 때에 상담하거나 미래의 일을 미리 말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나무나 식물 및 관목도 경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성경에서 “나무”로 번역되는 히브리어로 “에셀”(창세기 21 : 33)은 다른 초목에 유익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스런 식물로 간주되었습니다. 테레빈 나무와 밤나무, 상수리 나무와 같은 나무는 그들과 피난처를 마련해 주고 장수하는 생의 힘을 나타냈으므로 특히 성스러운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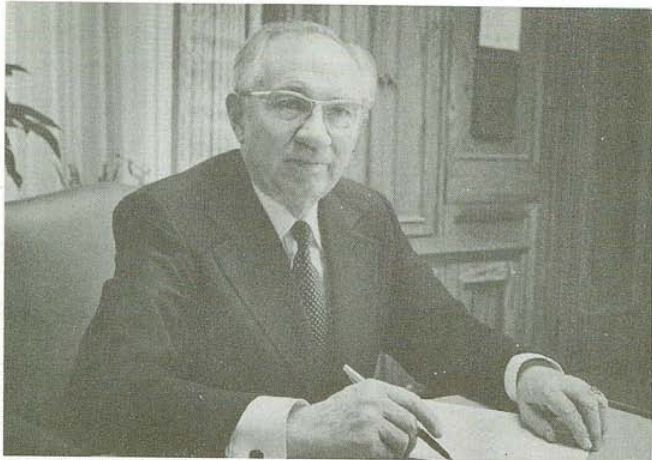
그들은 또한 운명과 행운과 폭풍우와 사막의 신 및 인간과 자연의 모든 기능과 역할에 필요한 신이었습니다.

노예 제도에서 노예 해방으로, 유목 방랑 생활에서 안정된 농경 생활로, 농촌 생활에서 도시 생활로, 국가 영역에서 국제적 지위로 이동해 나가는 문제는 신의 도움과 개입을 끊임없이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나 예언자들은 백성들이 다 산에 마음이 끌리고, 행운의 목적이나 신비한 능력을 지닌 우상 신에게 마음을 돌리지 않고 여호와를 믿게 하는 방법을 추구하는 데 부신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호와께 헌신하고, 도덕적, 사회적, 영적인 의로움의 생활은 안정과 성공에 이르는 유일한 참된 방법임을 확신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의로운 영혼의 영적 조각품

의로운 영혼의 영적 조각에 있어서 초기의 구도와 선과 경험이 자주 이후의 생애에 나타날 대담한 윤곽을 예고 해 주기도 합니다.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의 생애에서처럼 다음에 제시하는 예화가 설명하듯 그 모범이 때로는 놀랄만치 두드러집니다. 또한 그 이야기 하나하나가 그대로 성공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집무 중이신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1932년 유타 대학교 졸업생인
힝클리 부대관장

한 때는 신학 연구원 중등부 교사로 봉사한 적이 있는 힝클리 부대관장님은 지금은 교육 위원회와 브리감 영 대학교 이사회의 집행 위원장으로 봉사하고 있으며 그의 재임 기간 동안 신학 연구원 대학부 및 중등부 프로그램을 전세계에 놀라울 정도로 발전시켰습니다. 1971년 유타 대학에서 동창회 공로상을 받았으며, 1979년에는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인류학 명예 박사 학위를 받은 바 있는 힝클리 부대관장님은 교육에 대한 폭넓은 안목을 갖고 계십니다.

소년 시절에 그가 처음으로 가졌던 직업은 데저렛 신문 배달부였고 성인이 되어 그는 데저렛 출판사의 사장으로

수년간 봉사했습니다.

그가 체험한 선교 사업 역시 맨 밑바닥부터의 출발이었습니다. 영국 제도에서 복음 선교사의 임무를 마치고 나서 그는 1935년에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에 의해 곧 오늘날의 공보 위원회의 전신인 라디오 공보 및 선교사 문화 위원회의 서기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으로부터 선교사의 책임자로 부름을 받아 1951년부터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받을 때까지 7년간 봉사하면서 이 방면에 대한 경험의 폭을 더욱 넓혀 갔습니다. 후에도 여전히 그는 십이사도 평의회(교회 선교사 위원회)의 일원으로서 온 세

제의 프로그램의 운영을 관리했습니다.

힝클리 부대관장님은 젊었을 때 한번은 결석적인 상원의원 리드 스무트 대신으로 즉석에서 연설을 하여 대단한 호평을 받았습니다. 근래에는 그분의 분명한 자발적인 봉사로 말미암아 1980년도에 가졌던 교회 조직 150주년 기념 행사를 통하여 지역 텔레비전뿐만 아니라 전국

대한 관심을 갖게 했습니다.

●그가 소년으로서 집안에서 이야기를 들은 경험으로 인하여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 대하여 지니게 된 사랑은 그의 할아버지 아이라 엔 힝클리가 열 다섯의 나이로 나부에서 예언자의 말씀을 전해 듣고 간직했던 예언자에 대한 사랑과 흡사한 것이었습니다.



힝클리 부대관장의 9세 때의 모습 1961년, 이것은 솔트레이크시티 교회 소유의 일간지인 데저렛 신문의 이사로 제실 때의 사진임. 힝클리-관장은 왼쪽 구석 아래쪽에 앉아 계심. 마크 이 피터슨(베이플 뒤 중앙에서 왼쪽)이 이사회 의 책임자였음.

을 대상으로 하는 텔레비전에서 교회를 대표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한국 동란시에 주와 연방 정부의 선발 징병국 참모로서 일한 그의 경험은 대관장단에서 정부와 정책적인 일에서 도움을 구하는 특별 사업 위원회의 회장 자리를 맡도록 준비시켰던 것이었습니다.

●주일학교 본부 임원회에서 그의 봉사(그의 선교사의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2년 후에 시작되었음)는 회원들이 복음을 올바르게 배우고 그렇게 하여 영원히 지속되는 영적인 개종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회에서의 가르침에 대한 지속적인 질적 향상에

●전쟁과 전쟁의 소문 가운데서 힝클리 부대관장님은 한국과 월남의 군인들과 필리핀과 오키나와와 같이 오래 전에 종식된 전쟁터를 방문했으며 이러한 방문은 그에게 평화를 갈구하는 마음을 품게 했으며 “전쟁이라는 직물”을 통해 비치는 “은빛 실”을 분별하는 능력을 심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신앙 가운데 그는 교회의 연한 싹이 트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1961년 그는 처음으로 필리핀 군도를 방문하여 거기서 재현남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 거기에는 오직 1명의 회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41,000명의 회원과 13개의 스테이크와

4개의 선교부가 있습니다.

●십이사도의 일원으로서 수년 전 극동 아시아를 담당하던 경험으로 인하여 그는 브리감 영 대학교 연예단을 이끌고 중공을 방문하도록 지명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전에 남 아메리카를 관리했던 경력 때문에 교회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전



힝클리 부대관장은 3년간 남미의 교회를 관리하셨음, 칠레의 산티아고 교회 학교 수업에 참관하신 모습.



힝클리 부대관장은 그의 부인 마조리(오른쪽) 자매와 함께 1973년 유타주 에덴에서 가족 생일 파티에 참석하였음.

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스트 밀크리크 스테이크 부장으로 봉사한 후 1958년에 총관리 역원에 처음 지지받았을 때 그가 하신 말씀과 같이 그는 생애에서 많은 훌륭한 영향력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백케이 대관장과 함께 지난 밤 늦게 까지 말씀을 나누고 나서 나는 나를 이곳으로 인도한 길에 관해서 줄곧 생각해 왔습니다. 나는 그 길을 혼자서 걸어 오지 않았음을 압니다. 나는 많은 남자와 여자들 주 오늘 이곳에 제신 위대하고 훌륭한 분들과 내가 이름을 잘 기

억하지 못하는 많은 훌륭한 분들과 나를 도와 주셨던 분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대회 보고, 1958년 4월, 123페이지)

교회 회원들은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이 그와 같이 준비되어 있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분 자신의 독특한 역사뿐만 아니라 교회의 미래를 전대미문의 것으로 인도해 나가는데 필요한 오랜 연륜에 의해 쌓아온 영적인 감각을 지니셨습니다.

그의 마음은 변함없는 원리로 깎차 있으며 그분의 풍부한 생의 경험은 이러한 원리를 적용할 특별한 기회를 제공해



57년 월남전에 참전한 말일성도 군인들을 방문하고 있는
힐러리 부대관장.

힐클리 부대관장님은 소체원의 일이나
수리 작업으로 휴식을 취하고 기본 전
환을 했으며 손수 일하는 데서 큰 평안
을 찾았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의 시
골 생활에서 그런 기술을 익혔던 것입
니다.

“남편은 항상 나와 자녀들에게 완전
한 신뢰를 보여 주셨습니다.”라고 힐클



제이 두벤 클라크 이세 부대관장(오른쪽), 리차드 엘 이반스 장모(중앙), 프로그램
담당자인 고든 비 힐클리 장모. “일요일 밤의 교회시간”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임.



1979년 9월 한국 부산에서 교회 회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
는 모습임(왼쪽).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힐클리 부대관장을 훌
륭한 판단력을 지니신 분, 유우머가 풍
부하신 분, 선한 뜻과 훌륭한 성품을
소유한 분으로 묘사합니다. 평범한 형
용사인 훌륭한이라는 말은 그분을 설
명하는 핵심 단어가 됩니다.

그의 부인이신 마조리 힐클리 자매는
그녀의 남편의 “존엄성과 충성심”에 대
해서 얼마나 깊은 감명을 받았는지 모
른다고 말하면서 “그분은 나와 나의 가
족을 보다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
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기를 주저한
적이 없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리 자매는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
게 자신의 능력 이상의 것을 할 수 있
다는 격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힐클리 부대관장은 여러 해 전부터,
가족의 중요성에 대한 선견지명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분의 가족의 또 하나의 영적 근원은
힐클리 부대관장의 “아름답고 분명한 매
일의 기도”였다고 힐클리 자매가 말했습
니다. 그녀는 그의 변함없는 긍정적인
확신에 관하여 언급했고 걱정거리가 있
는 가족에게 늘 “결국엔 일이 잘 될게
다.”라고 하시며 확신을 심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음악과 문학과 삶 그 자체에

대한 그의 사랑은 그에게 큰 신비를 더해 주었습니다.”라고 헝클리 자매는 말했습니다.

약 20년 동안 십이사도로서 헝클리 장로 곁에 앉았던 하워드 더블류 헌터 장로는 그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년 동안을 헝클리 장로와 나는 십

“지성과 감성이 이상적으로 조화를 이룬 그의 지혜는 평의회에 제시되는 어떠한 문제의 세부적인 사항도 신속하게 파악하였다. 그러나 그분의 반응에는 언제나 자비가 조화된 공의로움이 담겨져 있었다.” 몬슨 장로는 또 그분은 “지칠 줄 모르는 일꾼”이라고 했고 그분은 언제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1972년 헝클리 장로가 솔트레이크시티를 초대한 로아리조나 선척자 그룹과 함께 만나고 계심.

1970년대 초에 교회 본부를 찾은 한 방문객과 함께 유럽에서의 선교 사업을 의논하고 계신 모습임.



이사도 평의회에서 나란히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지혜와 판단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가 대관장단 보좌로 지지되었을 때 비록 우리가 서로 함께 앉아 있었을 때 느꼈던 그러한 느낌은 갖지 못하게 되었지만 나보다 더 그의 부름을 기뻐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만큼 능력이 있는 분은 드물 것입니다. 그는 그의 새로운 부름을 통하여 교회를 위해 큰 일을 하실 것입니다.

12년간 그분 옆에 앉아 계셨던 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는 헝클리 부대관장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의를 구해야 한다는 신앙을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헝클리 부대관장은 결국 교회는 개인의 간증과 회원의 자발적인 헌신과 봉사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다는 중요한 진리를 터득하셨습니다. 연차 대회에서 그분은 “교회를 나쁘게 말하는 자들은 신학에 대해 논박할 수는 있으나 성신의 능력으로 나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진 이 간증을 논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대회 보고, 1961년 10월, 116페이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인류에게 복음 진리를 기꺼이 나누어 주기 위해 하늘이 주신 선




1958년 4월 연차 대회에서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으로 부터 새로운 십이사도 보조로 소개받음.

“지성과 감성이
이상적으로 조화를 이룬
그의 지혜는
평의회에 제시되는
어떠한 문제의
세부적인 사항도
신속하게 파악하셨다.
그러나 그분의 반응에는
언제나
자비가 조화된
공의로움이 담겨져 있었다.”

교사의 부름을 받고 세계 각처에 나가 있는 교회의 선교사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등한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연차 대회를 통하여 50년에 걸쳐 끊임없이 세상의 주민들 가운데 만연되는 “도덕적인 부패”에 대해 염려에 가득 찬 폭넓고 깊은 말씀을 들어 왔습니다. 사회로부터 소외된 남미의 한 젊은이와의 “전쟁과 평화”를 주제로 한 대화에서 힝클리 부대관장님의 동정과 통찰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힝클리 부대관장님은 참된 도덕관에 대한 그 젊은이의 생색을 내는 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부드러운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나는 소위 그가 주장하는 평화는 위장된 것이며 그 이유를 그에게 이야기해 주겠노라고 말하여 그를 다소 당혹하게 했습니다.” (대회 보고, 1970년 10월, 63페이지)

교회 본부의 주요 역원으로 재임하던 중 대관장단의 일원이 되신 이 경륜의 시대의 유일한 지도자이신 힝클리 부대관장님은 참으로 인상적인 임무 지명과 부름을 거쳐 주님으로부터 계속해서 교육을 받아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열성적이고 겸손하고 막 귀환한 한 선교사로서 십이사도였던 조셉 에프 메리틸로부터 대관장단에게 15분간 보고하라는 지명을 받고 교회 본부로 왔을 때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 보고 내용이 대관장단의 비상한 관심을 끌어 거의 한 시간 반이나 연장되었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결코 끝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조그마한 일에도 충실한 청지기였던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님은 이제 거의 매일 몇 년 전에 그가 처음으로 왔던 바로 그 대관장단실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



탐보라 산의 폭발은
대기의 이상을 일으켜
태양 광선을 가려
지구 전체의 기온을
섭씨 1도
이상 낮추게 했다.

“여름이
없는 해”

피터 케이 벨빌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휴화산으로 1980년에 폭발한 세인트 헬렌스 산이 인기있는 뉴스 거리로 등장하면서, 화산에 대한 일반의 인식과 흥미가 높아지게 되었다. 어떤 경우에는 화산 폭발은 매우 극적이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자연히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게 된다. 그러나 화산이 휴지 상태로 돌아가면, 대중의 호기심은 시들해지고, 폭발은 역사적인 주석이 붙여져 세인의 기억에서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역사적인 주석에는 이제까지의 기록 중에서 가장 큰 폭발이 있었던 화산에 대한 기록이 있다. 그러나 이것이 또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역사에서 작은 역할을 맡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1815년에는 자바 동쪽, 쉘바와 섬에 있는 탐보라 산에 화산 폭발이 있었다.

화산이 폭발한 정확한 날짜는 화산에 대하여 정의한 자료의 출처에 따라, 4월

5일에서 7일까지로 나타나 있다.

4월 7일이라고 본 것은 시간대를 고려한 것이고, 북미 시간으로는 1815년 4월 6일에 화산 폭발이 있었다.

탐보라가 폭발했을 때, 산 정상이 약 1200m 가량이 사라졌으며, 지름이 24km에 달하는 분화구가 생겼다. 분출물의 양을 추산하는 데는 여러 설이 있으나, 가장 공통된 수치는 150km³라는 것이다. 탐보라 마을의 해안선은 5.4m가 내려앉았고 폭발은 1600km 밖에서도 감지되었다. 가장 큰 피해를 받은 곳은 반경 480km 이내의 지역이었는데, 그곳은 삼일 동안 완전한 암흑으로 뒤덮였다. 그 암흑은 물론경 니파이삼서 8장에 기록된 것과 매우 흡사했다. 산에서 생긴 뜨거운 공기는 태풍이 되어 여러 곳으로 퍼져 나갔고 건물과 생명체를 쓸어갔다.

말일성도에게 흥미를 주는 것은 이 폭발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는 것이다. 탐보라 산의 폭발은 대기의 이상을 일으켜 태양 광선을 가려 지구 전체의 기온을 섭씨 1도 이상 낮추게 했다. 이처럼 기온이 내려감에 따라 많은 사람들에게 1816년은 “여름이 없는 해”로 알려지게 되었다. 미국 동북부 지역에서는 6월과 7월에 눈이 내렸고, 8월에는 서리가 내려 농작물이 큰 피해를 입었다. 여러 해 동안 고난을 치른 뒤에, 다시 흉년까지 들어 스미스 가족은 도저히 견딜 수 없었으므로 버몬트주를 떠나게 되었다.

그들은 재산을 챙겨 뉴욕주 팔마이로로 이주했으며, 그곳에서 어린 요셉은 놀라운 시현과 물론경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

여러 해 동안
고난을 치른 뒤에,
다시 흉년까지 들어
스미스 가족은
도저히 견딜 수 없었으므로
버몬트주를
떠나게 되었다.

십일조에 관한 네 가지 단상

글렌 레이덤

연 아홉의 젊은이로서 나는 처음으로 말일성도와 알게 되어 주일학교 개회 순서에서 연보대에 1불을 넣을 준비를 하고 앉아 있었다. 나는 물론 친구들에게 내가 그리 껄껄한 사람이 아니라 는 것을 보여 주고 싶었던 것이다. 사실 나는 시간당 고작 35센트를 받고 일하고 있었으므로 1불은 내게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다.

그러나 주일학교가 다 끝났지만, 연보대는 전혀 볼 수가 없었다.

그날 저녁 성찬식 때는 헌금을 배로 하여 2불을 내려 했지만 역시 연보대는 보이지 않았다. 보나마나 나가는 문에서 헌금하는 것이 분명할 것이라는 생각밖에는 할 수 없었다. 나는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고 준비했지만, 모두 다 나와 악수를 하자고 했으므로 주머니에

서 손을 빼지 않으면 안되었다.

건물 밖으로 나온 나는 초대해 준 친구들에게 슬쩍 물어 보았다. “헌금은 언제 걸지?”

그들은 미소지으며 대답했다. “우리 교회에서는 헌금대를 돌리지 않아.”

“돌리지 않는대구?”하고 내가 물었다. “그래.” 그들은 대답했다.

그저 “좋은데!”하고 나는 생각했다. “이 교회가 바로 내가 찾던 교회구나.” 바로 그 시간이 내가 십일조에 관하여 배워야 할 시간이었다.

나는 종교에 대하여 오래 전부터 열심히 기도해 왔었다. 나는 계속된 불안감, 즉 영적인 위안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느낌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 주일 수요일 밤에 선교사들은 나에게 십일조에 대한 공과를 가르쳐 주었으며,

나는 그때까지 내가 갈망하던 위안을 찾았다. 두 분의 장로들이 십일조에 관해서 내게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내 온몸으로 스며든 위안감을 나는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처음 한 말에서부터 마지막으로 아멘 할 때까지 나는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알았다.

그 바로 다음 일요일에 나는 첫 십일조를 냈으며 그것은 내가 침례를 받기 6개월 전이었다.

교회에서 30여 년을 지내는 동안, 나는 십일조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또는 그 훌륭한 율법을 실천하는 데서 오는 위대한 축복에 대하여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다. 그중에서 네 가지 면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잘못 1 : 십일조를 내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

십일조를 바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있어야 한다.

교회에서 제작한 하늘의 문이라는 영화에서는 십일조를 바치도록 뒤에서 밀어 주는 힘으로 신앙의 실재가 강조되고 있다. 그 영화 내용은 로렌조 스노우 대관장 재임시에 교회가 말할 수 없는 재정적 딜레마에 빠져 있음을 그리고 있다. 교회는 부채로 인해서 도저히 구제해 볼 여지가 없었다. 해결책을 찾고 있는 동안, 스노우 대관장은 여러 번 해결 방법을 제시받았는데, 모두 교회 회원으로부터 현금을 받아들이는 제안이다. 그 제안에 만족하지 못한 그는 영의 속삭임에 따라, 교회에서 가장 심한 시련을 받고 있는 곳으로 여행했다. 유타주의 세인트 조지는 35년 동안이나

가뭄에 시달려 왔다.

영감을 받은 스노우 대관장은 이 절망 상태에 빠진 주민들에게 십일조를 바쳐 신앙을 나타내 보이기를 호소했다. 그의 호소에 응하여, 실제로 하늘 문이 열렸으며, 사람들은 축복을 받았다.

잘못 2 : 십일조는 지불된 돈의 액수로 측정된다.

십일조는 얼마나 많은 돈을 내든 어디까지나 십일조이다. 나는 1954년에 교회를 대신해서 가난한 여덟 살 난 나바호 소녀에게서 5센트를 받은 일이 있었다. 안수례를 받은 뒤에 그녀는 5센트를 꼭 움겨진 조그만 주먹을 내게 내밀었다. “여기 내 십일조가 있어요. 장로님, 완전한 십일조입니다.”

그 어린 나바호 소녀는 가장 부유한 교회의 회원이 이제까지 바친 완전한 십일조만큼 많은 십일조를 냈던 것이다.

잘못 3 : 십일조를 바치면 십일조를 내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곤란을 받는다.

내 생에서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추억은 신혼초에 있었던 경험이다. 나는 당시 브리검 영 대학에 다니고 있었으며, 우리 부부는 첫아기와 함께 처음 마련한 집으로 막 이사를 했다.

새로 아기가 태어나 아내가 일을 할 수 없었으므로 우리는 경제적으로 심한 곤경에 빠져 있었다. 우리가 한 달 예산을 세우면서 고정적으로 지불할 지불금에 십일조를 합해서 계산해 보니 단지 50센트가 남게 될 뿐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주께서 예언자 말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말라기 3:10-12 참조)을 믿었으므로 그 결정을 내리

는데 오랫동안 주저하고 애쓰지 않았다. 우리는 십일조를 냈다.

다음 월요일에 나는 시내에서 어떤 상점에 전시된 그림들을 보고 있었다. 브리감 영 대학에 다니는 한 친구가 우리에게 아름다운 판화를 주어 집안에 걸어 두라고 했는데, 물론 나는 틀을 살 돈이 없었다. 그 자리에서 떠나려고 몸을 돌렸는데, 갑자기 상점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뒤에 있는 젊은이에게 집 칠할 사람을 구하는 사람을 알고 있는지 물어 보아야겠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의 부친은 페인트 공이었으므로 자연히 나도 그런 기술을 배울 수 있었다. 그때가 겨울이었고 불경기여서 어디서든 할 일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일자리를 쉽게 얻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영감에 따라 점원에게 일할 데가 있는가를 물어 보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고객 한 분이 바로 오늘 아침에 페인트 공을 찾으시던데요.” 그는 내게 그 사람의 주소를 알려 주었으며, 나는 바로 그를 찾아갔고, 오후에는 칠하는 사람들의 감독으로 시간당 2불을 벌었다. 그것은 당시로서는 꽤 높은 임금이었으며, 그 후로는 직장을 잃은 적이 없었다.

절대로 십일조는 사람들을 가난하게 하지 않는다. 십일조는 인간을 부하게

한다. 십일조를 바치면 참으로 하늘 문이 열린다.

잘못 4 : 십일조는 우리 돈이다.

조지 엘버트 스미스 대관장이 한 이야기가 생각난다. 그가 교회 회원인 어느 부유한 친구와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 친구가 십일조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기는 보통 방법대로 십일조를 내지 않고, 매년 수입의 십분의 일을 은행에 넣었다가 자선을 베푸는데 사용하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요?”하고 물었다.

스미스 대관장은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가지고 선심을 쓰시는군요.”(임프르브먼트 이라, 1947년 6월호, 357페이지)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은 십일조는 현금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빚지고 있는 부채라고 상기시켜 주고 있다.

“십일조는 모든 사람이 주님께서 만든 것을 사용하는 대가로 주님께 지불해야 할 빚인 것입니다. 인간은 십일조의 빚을 지고 있으며 주님은 채권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합니다. 모든 채권자에게진 부채들 모두 갚을 수 없을 경우라도 주님께 진 빚은 먼저 갚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만 여러분은 좀 놀라실지 모르나,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부채를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십일조를 바칠 만한 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축복해 주시므로 다른 채권자들에게 빚을 갚을 능력도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성도의 빛, 1981년 2월호, 3페이지) *

십일조를 바치면
참으로
하늘 문이 열린다.

초콜렛 케이크

에스더 무어 브라운

늘 그랬듯이 이번 연차 대회에서도 몇몇 형제님들께서는 교회의 성장에 관하여 보고하였으며, 나도 신전, 방문자 센터, 매달 더 많은 나라로 가는 더 많은 선교사, 점점 더 확장되는 회원 선교사 프로그램 등에 관한 말씀을 듣고 기쁨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 “네 이웃은 어떻게 되었지?”라는 작은 음성이 들려 왔습니다.

그러자 즉시 또 다른 음성이 “우리 이웃은 희망없어.”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으며 우리 집 마당에서 장난을 치던 12세, 10세, 8세 된 세 이웃집 소년을 붙잡은 밤은 특히 더 그랬습니다. 나는 이 일로 화가 났습니다.

밀러 가족(가명입니다)이 이사온 지 1주일밖에 안되었을 때 여섯 살 짜리 우리 딸 보니가 이마를 얻어 맞고 울면서 들어왔습니다. “제리가 돌로 때렸어요.”

열 살 된 캐시는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엄마, 제리 밀러는 보니가 자기네 고양이를 안고 있다고 보니에게 큰 돌을 던졌어요. 보니가 울기 시작해서 밀러 부인이 나오자 제리는 우리가 그를 욕했다고 말했습니다. 밀러 부인은 우리에게 자기 식구를 귀찮게 하지 말고 우리 집 마당에만 있으라고 했습니다.”

“엄마, 우리는 누구에게도 욕하지 않았어요.”하고 8살 된 신디아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다섯 자녀는 이웃집의 다른 어린이들과 종종 다투기는 했지만 우리 어머니들은 그들이 진정할 때까지 배어 놓기만 했습니다. 어린이들은 한 시간 정도 지나면 대개 다시 같이 놀았습니다. 그러나 밀러 부인은 자기 자녀가 어떤 일을 했는지 항상 자기 자녀를 두둔하는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나는 우리 마당에서 그 소년들을 붙잡았을 때 그들을 그의 어머니에게 데리고 가서 꾸짖었습니다. “만일 다시 한번만 더 우리 마당에 돌이 날아오거나 우리 아이들이 돌에 맞거나 위협을 당하거나 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우리 집 창문으로 들여다 본다면 경찰을 부를 테야. 그리고 밀러 부인, 부인께서 맥의 자녀를 잘 다스린다면 아마 이웃은 다시 평화롭게 될 것입니

다.” 나는 분노에 떨면서 집으로 돌아 왔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화가 가라 앉자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만일 어떤 가족에게 훌륭한 말 일성도 이웃의 모범이 필요하다면 바로 이런 경우야. 내가 어떻게 이런 나쁜 모범을 보일 수 있었을까? 그리고 내가 한 일을 좀 봐. 나는 두 번 다시 그렇게 화내고 싶지 않아.”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소리내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신의 자녀는 어떻게 할까요?”

간구하는 동안에 내 마음속에 분명한 응답이 왔습니다. “큰 사랑을 보여라.”

나는 그것에 관하여 생각하면서 즉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초콜렛 케이크를 굽고 희게 설탕을 입히면서 아이들과 나는 밀러 가족과 그들이 우리를 대한 방법과 우리가 그들을 대한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시는 구세주의 모범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케이크가 다 만들어져서 나는 그것을 이웃집에 가져 갔습니다. 밀러 부인은 집에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제일 큰 소년에게 주고 세 소년에게 “특별히 너희를 위하여 이 케이크를 만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일면 놀라면서도 기뻐했습니다. “내가 화를 낸 것을 아주 언짢게 생각한단다. 그러나 정말로 기분 나빴던 사람이 누구인지 아니? 너희 어머니란다. 너희 어머니는 너희를 몹시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면 마음이 상하신단다. 우리 서로 잘 지내고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하여 좀더 노력할 수 있을까?”

틈은 당황해서 “좋아요, 그렇게 하지요.”라고 우물쭈물 대답했습니다.

내가 떠나려고 돌아서자 세 소년이 함께 “케이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머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그 다음달에 생긴 결과는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두 번 다시 돌을 던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또한 우리 작은 두 딸이 밀러 집안 소년들의 위협에 겁이 나서 집안으로 뛰어 들어오는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 소년은 나를 볼 때마다 명량한 음성으로 “아주머니,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여전히 화를 냈던 것이 몹시 부끄러웠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밀러 부인을 만난 적도 없었고 신디와 보니가 점심을 먹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할 때도 그녀를 찾아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보니는 제리가 자꾸 바퀴를 빼어 내기 때문에 자기 경주용 차를 갖고 놀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제리가 울기 시작하자 밀러 부인이 나왔어요. 그 아주머니는 보니에게 화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니에게 ‘만일 보니가 네 차를 망가뜨린다면 너도 보니가 그것을 갖고 놀지 못하게 할거야. 그리고는 제리에게 안으로 들어가서 얼마 동안 잘 생각해 보라고 하셨어요.’”

나는 지금도 그때 다시 가서 밀러 부인에게 사랑을 보였더라면 하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한 달 뒤에 이사갔으며 나는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한 개의 초콜렛 케이크가 가르쳐 준 교훈을 결코 잊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

내가 자란 조그만 핀란드 마을에서는 스키 경주가 가장 큰 연중 행사였습니다.

내가 어린 시절을 보낸 카렐리아에 있는 이 마을은 지금은 소련 영토가 되어 버렸습니다. 1939년부터 40년 사이에 두 나라가 전쟁을 한 다음 소련인이 이 마을과 함께 나머지 카렐리안 지역을 합병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릴 때 이 호수와 습지와 강과 추운 날씨와 언덕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땅은 핀란드의 영토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스키와 스키 경주의 땅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매년 2월이 되어서 가장 혹독한 겨울 추위가 사라지면 마을 사람들이 동면에서 깨어 나와 마을 번두리에 커다란 모래 구덩이에 모였습니다. 이 모래 구덩이는 여러 가지 훌륭한 이유에서 크로스 컨트리 스키 경주의 종착점으로 쓰이는

장소였습니다. 첫째 여름에 건설 인부들이 언덕 옆에 파 놓은 구덩이는 종착점으로서 뿐만 아니라 음식점을 세워도 좋을 만큼 컸습니다. 시합일이 되면 당밀 향기와 김이 나는 고기 파이와 소시지 냄새가 대기에 가득 찼습니다. 또 하나 눈덮인 모래 구덩이의 측면은 자연적인 관람석이 되었습니다. 관중은 그 측면과 가장자리에 둘러서서 경주 코스의 마지막 구간을 분명히 볼 수 있었고 승자가 결승 라인을 통과하는 순간 누가 승자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시합을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경기 임원들이 푸른 종이로 만든 완장을 큰 어린이들에게 차게 하고는 그들에게 균중을 지켜 보고 경기장이 혼잡해지지 않게 하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각기 다른 행사를 위해서 여러 코스를 표시했습니다. 작은 아이들용의 짧은 코스와 큰 아이들용의 좀 긴

타피 아이스카

레아 마호니



코스, 십대 남자와 여자, 성인 남자와 여자용으로 각각 별도의 코스를 만들었으며 심지어는 노인들을 위한 할아버지용 코스도 만들었는데 그들은 항상 그들의 특별한 시험에서 훌륭하게 경기를 했습니다. 각 그룹은 색종이 테이프를 선명하게 표시된 자기 코스를 달렸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가장 큰 행사는 성인 남자의 30킬로미터 경주였습니다. 우승한 사람은 1년간은 그 마을에서 영웅 대접을 받고, 자신이 어떤 인물인가를 스스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조용한 농부, 제화공, 점원 등이 자기가 이웃을 제치고 활주하여 승리하는 모습을 상상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우리의 영웅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타피 아이스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정상적인 성인으로서 키가 매우 작고 체격도 왜소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우리 가족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서 가장 마음씨 좋고 재미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그의 키가 작아서 우리가 눈과 눈을 맞대고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쉽게 친해질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가 그의 체격 때문에 겪어야 했던 고충을 이해했는지도 모릅니다. “아이스카”는 아마 그의 진짜 이름일 가능성이 많은 아이 나리가 줄어든 이름일 것입니다. 그러나 핀란드어에서 “타피”는 “나무 그루터기”나 “땅딸보”라는 뜻이므로 본래 그의 별명은 모욕적으로 쓰였을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에게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가 그해 최고의 스키 선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타피 아이스카가 훌륭한 스키

선수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성인 남자 경기에 출전한 해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성인 남자들은 10킬로미터 코스를 세 번 돌아야 하는데 우승자가 결승점에 들어설 때 타피 아이스카는 겨우 한 번밖에 못 돌았습니다. 타피가 결승점에 들어설 때 다른 스키 선수들은 모두 목욕탕에 들어갔거나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실망한 몇몇 어린 아이들만이 결승점에서 그들의 지친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과 그 다음 겨울에 타피 아이스카는 잠시라도 시간이 있으면 그 코스에서 스키를 탔습니다. 여름에는 수영을 하고 부오스키 강에서 커다란 군용 보트를 타고 노를 저었습니다. 그의 키는 자라지 않았지만 그는 점점 더 튼튼한 근육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이 튼튼한 근육과 그 훈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가 우승하리라는 확신을 갖고 기뻐하였습니다. 우리는 그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영화에서는 항상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타피 아이스카는 그해에도 우승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들어온 스키 선수들과 함께 결승점을 통과했습니다. 최소한도로 다른 사람보다 몇 시간씩 늦지는 않았으며 우리 이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그가 시험을 끝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가 큰 사람들과 경주하기에는 다리가 너무 짧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이번에는 그도 포기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해에도 타피 아이스카는 우리에게 핀란드 말로 “시수”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보여 주었습니다. 이것은 결심이나 용기를 뜻하는 말

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것을 갖고 있었었습니다. 그는 꾸준히 훈련을 쌓아 나갔습니다. 그 다음해 스키 시합이 벌어질 때 우리는 타피가 우승하리라고 알고 있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해마다 그렇게 생각했으나 이번에는 틀림없을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큰 걸음으로 뛰는 스키 선수들이 눈을 박차고 숲속으로 달려갔습니다.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다시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들이 나타나리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운데 일부는 자기 스키를 신고 우승자를 영접하기 위하여 모래 구덩이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웅인 타피 아이스카가 우승하리라고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추운 곳에서 기다렸습니다. 나무에는 하얗게 눈이 덮여 있었었습니다. 몇몇 굴뚝에서 연기가 나와서 회색의 리본을 만들면서 곧게 뻗어 올라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우리의 뺨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우리 모두가 후끈해졌습니다. 숲 가장자리에서 나타난 사람은 이 마을에서 가장 작은 사람, 지금은 이 마을에서 가장 큰 거인이 된 타피 아이스카였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의 선두에서 있었었습니다. 어른들도 벌떡 일어나서 그를 응원했습니다.

그가 언덕으로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그의 짧은 다리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라는 것을 알 수 있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뒤에 나무베는 거인이 나타났습니다. 나는 우리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이 긴 다리의 피한이 넘어지거나 스키가 부러지거나 어떻게든 그가 따라잡지 못하게 되기를 원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모래 구덩이의 꼭대기에 가까와졌을 때 키 큰 스키

선수가 미끄러지듯 스키를 지쳐서 먼저 결승점을 통과했습니다.

나는 그때부터 1년 내내 얼마나 자주 먼저 들어온 그 사람에게 미안하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 그 우승자에게 박수를 보낸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타피 아이스카가 결승점에 들어서자 굉장한 함성과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각자 스키를 타고 그를 따라서 구덩이로 내려갔으며 푸른 완장을 두른 큰 아이들은 아무도 우리를 제지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타피 아이스카 주위에 몰려서서 그를 하늘 높이 헹가래치고 그의 스키와 모든 것을 하늘로 던져 올렸습니다. 타피의 노력을 아는 수많은 마을 사람들이 우리와 합세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그가 1등이 아니고 2등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었습니다. 이 강철 같이 굳은 결심을 한 작은 사나이는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는 것의 가치를 가르쳐 주었고 나의 어린 시절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 일은 1938년에 있었었습니다. 그 다음해에 제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 많은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스키 대회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큰 아이가 되어서 푸른 완장을 차고 군중을 지켜 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도 갖지 못했습니다. 또한 타피 아이스카는 자기가 그 결승점을 1등으로 통과할 수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두번 다시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나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그는 결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어떤 점에서 보더라도 자기가 참된 승리자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

올림픽 개최식보다 더 큰 경외심을 불러넣어 주는 장면은 별로 없습니다. 수많은 팬들이 거대한 관중석에 모여 선수들이 트랙을 돌면서 퍼레이드를 할 때 박수 갈채를 보냅니다. 백 개 이상의 국기가 나부칩니다. 그 색채의 현란한 모습은 모든 사람의 눈을 부시게 합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수많은 비둘기를 하늘로 날려 보냅니다. 축포가 터지고 그리스의 올림피아 산에서 태양 광선에 의해 점화된 횃불을 든 주자가 메인 스타디움으로 뛰어와서 올림픽 성화에 불을 붙입니다.

모든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싶어합니다. 이 높은 영광을 획득한 사람들은 올림픽 상 뒤에 새겨진 3 단어로 된 라틴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시티어스, 알티어스, 포티어스.” 이 말은 “더 빨리, 더 높이, 더 힘차게”라는 뜻입니다. 올림픽이 시작된 이래로 이 구호가 그들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갱신된 기록과 인간이 이룩한 것에서 얻은 것은 모두 이 세 단어—진보하기 위한 인간의 영원한 추구를 나타내는—시티어스, 알티어스, 포티어스: 더 빨리, 더 높이, 더 힘차게의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얼마나 이 좌우명에 따라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은 올림픽과 세계 운동 기록에서 나타납니다. 1920년대에는 조니 와이스물러라는 사람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수영 선수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올림픽 이전에 67번에 걸쳐서 세계 기록을 수립했습니다. 그는 1924년과 1928년 올림픽에서 각각 다섯 개씩의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오늘날 그의 세계 기록은 십대 소녀들에 의해 깨지고 있습니다.

나는

평범한 사람이 되는 것을
택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뛰어난 사람이 되려는 것은
나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더 빨리
더 높이
더 힘차게

로버트 엘 백맨

수년 동안 1.6킬로미터를 4분 이내에
 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
 해 왔습니다. 영국의 의학도인 로저 배
 니스터가 1954년 5월 6일에 1.6킬로미
 터를 3분 59초 4에 주파하여 세계를 놀
 라게 할 때까지 수많은 선수들이 4분
 벽을 깨려고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했습
 니다. 그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
 의 제한된 능력에 대한 낡은 고정 관념
 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가운데 어린 고
 등학생 짐 라이언은 그 거리를 3분 59초
 에 주파했으나 그 분야에서 더 경험이
 많은 경쟁자 사이에서 8위에 그쳤습니
 다. 라이언 자신이 지금까지 거의 20번
 이나 이 거리를 4분 미만에 달렸으며 대
 영 제국의 스티브 오벳트의 세계 기록

은 3분 48초 8이라는 믿기 어려운 기록
 입니다.

투포환으로 던질 수 있는 거리는 18.2
 미터 정도가 한계일 것으로 생각되었습
 니다. 패리 오브라이언이 1956년 올림
 픽에서 그 신화를 깨뜨렸으며 현재 세
 계 기록은 22.471미터입니다. 1896년
 에 그리스에서 열린 사상 최초의 근대
 올림픽에서 원반 던지기 금메달 수상자
 는 29.09미터를 던졌습니다. 오늘날 세
 계 기록은 70.852미터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볼 리차즈가 장대 높
 이뛰기에서 4.5미터를 뛰어넘어 믿을 수
 없는 기록을 냈습니다. 재작년의 모스크
 바 올림픽에서 6사람이 5.49미터의 올
 림픽 기록을 깨뜨렸으며 뒤이어 폴란드

1954...잉글랜드의 옥스포드에서 달리는
 로저 배니스터.
 처음으로 1.6킬로미터에서
 4분 벽을 깨뜨린 사람이 되었다.



의 블리드슬라프 코자키웁츠가 5.692미터를 뛰었으며 60년 만에 처음으로 올림픽 장대 높이뛰기에서 세계 신기록이 수립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자키웁츠는 5.73미터(19피트 11/4인치)에서 세 번 실격했으나 그중 두 번은 적어도 5.7미터(19피트)는 뛰었을 것입니다.

이런 운동 선수들의 업적은 정말로 시티어스, 알티어스, 포티어스라는 말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것이 챔피언을 만들어 낼까요? 그전의 다른 누구보다도 더 빨리 뛰고 더 높이 뛰고 더 센 힘을 나타내 보이며 승리의 시상대 꼭대기에 서는 사람을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운동에서 우승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똑같은 자질이 인생의 어떤 면에서 실패를 기울이는 우승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의

모든 것이 언급되고 필요한 조치가 취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실제로 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성취될 수 없습니다. 로저 배니스터는 4분 벽을 깨 후, 열의는 “자신이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자신에게서 끄집어 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는 그 기록을 깨뜨린 경기에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저, 너는 무릎으로 뛰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뿔겨야.” 일리노이 대학의 훌륭한 코치인 봄 주프크는 언제나 좀더 개선해야 할 여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만일 여러분이 사력을 다해 가능한 최장의 거리를 최고로 빠르게 가장 오랫동안 뛰었다고 하더라도 눈앞에 큰 사자가 서 있을 때는 좀더 뿔 수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물

었습니다.

운동 선수들은 실제 시합에서 고통을 느낄 것이며 그런 고통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통 중에 훈련을 쌓습니다.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 운동 선수들은 고통을 겪는 동안에 힘을 얻게 된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 고통이 폐활량을 늘리고 근육을 발달시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참고 계속하면 후에는 더 큰 능력과 힘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인생에서도 똑같습니다.

랜싱 미시간 스테이크, 켈러머주 와드의 조지 티 조우한너선 일세는 대학 동창인 피트 카발로우에 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피트는 1.5미터가 겨우 넘는 키에 몸무게가 겨우 45킬로그램밖에 안 나가는 데도 오직 운동 선수가 되려고 했습니다. 카발로우(이 이름은 “말”을 뜻함)는 크로스컨트리 경주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첫해에 피트는 출전해서 완주하기는 했으나 스타디움이 완전히 텅 비고 나서도 한참 뒤에야 도착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조금 더 잘했고 3년째에는 아직 관중이 자리에 남아 있을 때 들어올 만큼 발전했습니다. 4년째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금년에는 저 작은 카발로우의 다리가 우승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나 아무도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에게 한 가닥의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스타디움으로 이어지는 언덕을 바라보면서 스타디움을 향하여 마지막 힘을 다하는 수많은 주자의 선두에 피트 카발로우가 달리는 것을 보고 싶어했습니다. 그 순간 체격이 크고 다리가 긴 주

자가 나타나자 실망의 탄성이 울렸고 팬들이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언덕 위로 작은 피트의 달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고함 소리로 스타디움이 시끄럽기 시작했습니다. “달려라, 피트. 힘내라, 작은 망아지.” 우승자는 마치 피트가 맨 처음으로 들어온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그가 최선을 다하여 분투한 모범을 기억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가 1등을 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개인적인 노력

짐 돌프의 대학 생활에서 나는 가장 훌륭한 개인의 노력의 산 예를 발견했습니다. 레이먼드의 혈통인 그는 칼라일 인디언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아무도 꿈꾸지 못했던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는 미식 축구팀의 주전 멤버였으며 너무나 잘 달렸기 때문에 재미로 상대편 팀에게 자기가 달리는 방향을 알려 줄 정도였습니다. 그의 팀이 공을 발로 차야 할 경우에 그는 64미터나 멀리 찰 수 있었습니다.

어떤 해에는 이 작은 칼라일 인디언 학교가 강팀인 하바드 대학을 물리쳤는데 그때 돌프가 공을 차고 달려서 얻은

1912... 짐 돌프는 스웨덴, 스톡홀름의 제5차 올림픽야드에서 5종목 경기와 10종 경기에서 모두 우승했다.



점수가 승점이 되었습니다. 또 한번은 사관학교 팀과 시합을 했는데 사관학교 팀이 찬 공을 받은 그가 그 공을 갖고 82.2미터나 뛰었는데 반칙으로 선언되어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프는 그 다음에 다시 찬 공을 받아서 득점하기 위하여 86.8미터나 달려갔습니다.

칼라일 인디언 학교는 펜실베이니아에서 온 무패의 강팀인 라페이에트 팀과 트랙과 육상 경기를 했습니다. 짐 돌프가 다른 한 사람을 데리고 그 시합에 나갔습니다. 라페이에트 대학에는 48명이나 되는 일개 부대의 운동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한 임원이 “아니, 너희 두 사람이 칼라일 인디언 학교 전체 팀이란 말이냐?”하고 말했습니다.

돌프는 “아뇨. 나 혼자예요. 이 사람

은 학생 관리 책임자예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라페이에트 대학에 대항하여 돌프가 높이뛰기, 넓이뛰기, 투포환, 원반던지기, 109미터 장애물 경기, 201미터 장애물 경기에서 이기고 91.4미터 경주에서 3위로 골인하여 시합을 끝냈습니다. 칼라일 인디언 학교가 이 시합에서 71대 41로 이겼습니다.

해롤드 코넬리는 여러 번 왼쪽 팔이 부러져서 왼팔의 힘이 (굽기가) 오른팔의 2/3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는 작은 팔을 훈련시키고 키우기 위하여 보스턴 대학의 정식 해머 던지기 선수가 던진 해머를 다시 던져서 돌려주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얼마 안되어 그는 선수들이 던진 것보다 더 멀리 던져서 돌

1971...조 프레이저가

뉴욕에서 가진 15회전 경기에서

전원 일치 판정으로 무하마드 알리에게 이겼다.



러주어 시합에 참여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세계 기록을 깨고 금메달을 땀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을 가장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권투 선수인 조 프레이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챔피언이 되고 다 운동 선수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

자신에 대한 신뢰

경주를 하기 전에 세계 기록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1964년 올림픽에서 미국의 수영 선수인 제드 그레이프가 “오늘 200미터 배영에서 누군가가 세계 기록을 깨뜨릴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과연 누가 기록을 깰까요? 그레이프는 “제가 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록을 깽습니다.

그리스 아테네에서 1906년에 있었던 비공식 경기에서 오스트리아 출신의 역도 선수인 조우세프 스타인박스는 프로 선수로 단정되었기 때문에 편파적인 관중으로부터 조롱을 받았습니다. 이 당황한 오스트리아인은 제2의 실력자인 그리스 사람이 시합에서 우승하도록 그 스타디움을 떠났습니다. 국기가 올라가고 군중이 박수를 칠 때 스타인박스가 다시 스타디움으로 와 그 우승자가 힘겹게 들어 올렸던 역기를 가볍게 그의 머리위로 세 번이나 들어 올렸습니다.

1952년, 체코슬로바키아의 초능력적인 에밀 자토펙은 1만 미터와 5천 미터 달리기에서 우승했습니다. 그는 승리를 축하하기 위하여 이전에는 한번도 41.8

킬로미터를 달려 본 적이 없었지만 마라톤에 참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신문 기자가 “정말로 당신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자토펙은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기에 참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24.1킬로미터를 달렸을 때 예선 우승자인 영국의 짐 피터스와 나란히 달렸습니다.

자토펙은 “우리가 좀더 빨리 달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라고 묻고는 앞서서 달렸습니다. 그는 우승할 때 웃고 있었습니다.

멤버 콜로라도 프로 미식 축구팀 선수인 플로이드 리틀은 자신감을 요약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범한 사람이 되는 것을 택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뛰어난 사람이 되려는 것은 나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정직

고대 그리스의 경기장에서 규칙을 위반하거나 심판을 매수하려 했던 사람은 벌금을 내고 자기 상패를 만들어 거기에 자기 이름과 자기가 범한 반칙을 새겨야 했습니다. 그런 상패를 제인즈라고 했습니다. 고대의 경기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천년 동안에 단 13개의 제인즈밖에 세워지지 않았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운동에는 속이지 않는 외에도 정직해지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골프 토너먼트 시합에서는 경기자가 움지 않은 채점 카드에 사인하거나 사인하지 않고 카드를 제출하는 사람은 자격을 상실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게이리 플레이어라는 유명한 골프 선수가

한번 그렇게 해서 유명한 시합에서 축출당했습니다. 그는 채점서에 있는 사람이 그에게 채점 카드에 이름을 서명하라고 일깨워 줄 수 없었는가 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선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인생에는 여러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 책임이었습니다. 나는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때 히틀러는 백인이 제일 우수한 종족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히틀러에게는 몹시 유감스러운 일이었지만 북미에는 어느 국가 대표팀보다도 더 많은 점수를 낸 10명의 흑인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중에도 제시 오웬스가 가장 뛰어났습니다. 개회식 때 히틀러는 오웬스와 인사하기를 거부했으며 의식적으로 흑인 선수들을 냉대했습니다. 오웬스는 단지 어깨를 으쓱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나는 히틀러와 악수하려 온 것은 아니니까……” 그리고 오웬스는 시합에 나가서 4개의 금메달을 땀습니다. 그가 넓이뛰기에서 세계 기록을 깨뜨렸을 때 맨 먼저 그를 축하해 준 사람은 동료 선수가 아닌 원기 왕성한 독일인 경쟁자 루즈 룡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기록은 처음이오, 당신이 가장 위대한 선수요.”라고 외쳤습니다.

오웬스가 룡의 양손을 꼭 잡자 관중이 요란한 박수 갈채를 보였습니다.

그러자 이 두 경쟁자는 서로 팔을 감고 트랙 경기장을 향하여 걸기 시작했습니다. 청중은 히틀러가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기뻐하며 한참 동안 함성을 질렀습니다.

1932년, 핀란드의 라우리 레티넨은 5

천미터 경기의 우승 후보로 지목되었습니다. 힐이라는 미국인이 마지막 코스에서 레티넨을 바짝 추격하자 청중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힐이 따라잡으려 하자 레티넨이 길을 막았습니다. 힐이 또 다른 쪽으로 앞지르려 하자 레티넨은 다시 길을 막아서 이 미국인이 속도를 늦추게 만들었습니다. 힐은 결승점에서 레티넨을 거의 다 따라갔습니다.

관중이 너무나 오랫동안 큰 실망의 함성을 질렀기 때문에 심판들은 한 시간 이상이나 승리자를 발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길을 막는 것은 시합 규정을 어기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이 핀란드인을 승리자로 선언했습니다.

레티넨이 시상대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서자 굉장한 야유가 터져 나왔습니다. 레티넨은 자기 머리에 월계관이 씌워지자 그것을 벗어 들고 내려와서 힐의 머리에 씌워 주었습니다.

훈련

올림픽 트랙 경기 코우치인 딘 크롬웰은 “최선을 다하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는 생활에서 제거하라.”고 말했습니다.

뉴저지 프린스턴 대학 출신으로서 유명한 운동 선수이며 전에는 프로 농구 선수였고 현재 미국 상원의원인 빌 브래들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지 자기 훈련 습관을 개발하기만 하면 됩니다. 한 지점에 서서 그곳에서 25번 연속으로 농구공에 붙인시킬 때까지 던지는 연습을 하게 하며 일요일 아침에 늦잠을 자지 않고 일어나서 교회로 가게 하는 자기 훈련 습성을 키워야 합니다.”

물론으로서 올림픽에서 0.8킬로미터

달리기에 참여한 웨이스 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랙 경기장은 증명하는 장소 즉 내 마음이 내 육체가 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을 하게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내가 60초마다 402미터씩 열번을 달렸다고 말할 수 있는 곳이며 마지막 4바퀴는 너무 힘들어 내 다리가 떨어져 나갈 것같이 생각되지만 내 마음은 계속해서 달리게 만든 곳입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나 위대한 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려는 사람은 너무나 적습니다.

어느 정도의 실패를 예상할

클리프 서쉬맨은 1960년 로마 올림픽 400미터 장애물 경기에서 은메달을 땀으나 올림픽 선발전에서 탈락하여 1964년 동경 올림픽에 갈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의 고향의 몇몇 팬이 보낸 동정 편지에 그는 이렇게 답장했습니다.

“나를 측은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여러분 중 몇몇 사람에 대하여 측은하게 생각합니다.

“그 수많은 해에 걸쳐 초를 다루며 견디어 낸 훈련과 고통과 땀과 달리가 생긴 물집과 그 고통이 모두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노력했습니다. 나는 전혀 노력하지 않는 것보다는 차라리 실패하더라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각자 자기 자신의 올림픽 팀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할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것이 학교 축구팀이거나 노래팀이거나 학교에서 높은 성적을 받는 학생팀이거나 어떤 역할을 맡거나 다 좋습니다. 여러분의 능력 이상의 것을 달성하겠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

는다면 여러분이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실패로 인하여 실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상처에서 찌꺼기를 끄집어 내고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발걸음이 몇 킬로미터가 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성공으로 바뀔 수 있게 하는 것뿐입니다.

“나는 내가 결코 나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압니다. 성공할 확률은 상당히 적지만 나에게는 유리한 조건 즉 열의와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운동에서 최선을 다할 때의 만족과 반에서 뛰어나게 하는 것의 기쁨과 일을 끝내고 자기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잘 알면서 되돌아볼 때의 훌륭한 느낌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상에는 충분한 자리가 있지만 아무나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철전 팔기

헝가리인인 카롤리 타카스는 세계에서 권총을 제일 잘 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올림픽에서 우승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집으로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의 오른팔 즉 총쏘는 팔을 절단해야 했습니다.

타카스의 회복은 몹시 느렸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것보다도 정서적인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는 최악의 절망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돕고 싶어했으나 해줄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타카스는 친구들을 피하기 시

작했고 그의 가족조차도 그가 어디에서 시간을 보내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카로울리 타카스는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서 왼쪽 팔과 겨냥하는 눈을 훈련했는데 이 훈련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적으로 완전히 숙달시키는 훈련이었습니다. 타카스는 그 다음 올림픽 때까지는 준비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사격 시합이 끝나고 시상대 중앙에 왼팔의 헝가리인이 목에 금메달을 걸고 서자 박수 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타카스는 단순한 사격 능력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복귀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최악의 절망 상태를 경험하는 것이 실패를 뜻하지는 않으며 그것은

단지 퇴보하는 동작이 끝나는 것을 나타내는 신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밀바닥은 도약하기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는 말 그대로입니다.

팀 워크

중국 속담에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관해서 생각해 봐도 함께 일하는 두 사람은 여러 사람이 따로따로 할 수 있는 일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단결하면 큰 힘이 나옵니다.

1967년 6월, 유타주 프로보에 있는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전국 대학 체육 협회 주최로 트랙 경기가 열렸을 때 남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온 네 사람이

1936...잉글랜드의 런던에서 벌어진 미국 대 영국 트랙 경기에서 제시 오웬스가 365미터(400야드) 계주에서 우승했다.



402미터 제주에서 세계 기록을 1초 단축시켰습니다. 91.4미터(100야드)의 세계 최고 기록 9.1초와 비교해 보면 402미터(440야드)에서 38.6초라는 것은 놀라운 기록입니다. 남 캘리포니아 대학 우승팀의 선수들이 각자 91.4미터(100야드)를 평균 8.7미터에 달린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여 공동으로 행하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인생은 협동하는 모험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지도자와 피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함께 잘 지내기 위하여 서로 타협해야 합니다. 또한 이웃에 대한 비이기적인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진정한 승리자는 최선을 다한 다음에 하나님께 여분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캐시 퍼저슨(17세)은 배영 경기에서 선두 주자보다 15센티미터 떨어져서 온 힘을 다해 헤엄쳤습니다. 그녀는 팔과 다리의 감각마저 느끼지 못했으나 계속해서 고투하고 있었습니다. 8미터, 7미터, 6미터, 5미터. 그녀는 승리할 때까지 더 힘껏 헤엄쳤습니다. 그녀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계속해서 ‘하나님, 제발 제가 계속해서 나갈 수 있게 도와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따름이에요.”

프레드 한센은 장대 높이뛰기의 기록이 저조한 것을 걱정하다가 그 뜨거운 경쟁의 열기 속에서 잠시 멈추어 서서 아버지에게서 온 편지를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이사야 40:31) 않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프레드는 크로스바를 뛰어넘어 새로운 올림픽 기록을 세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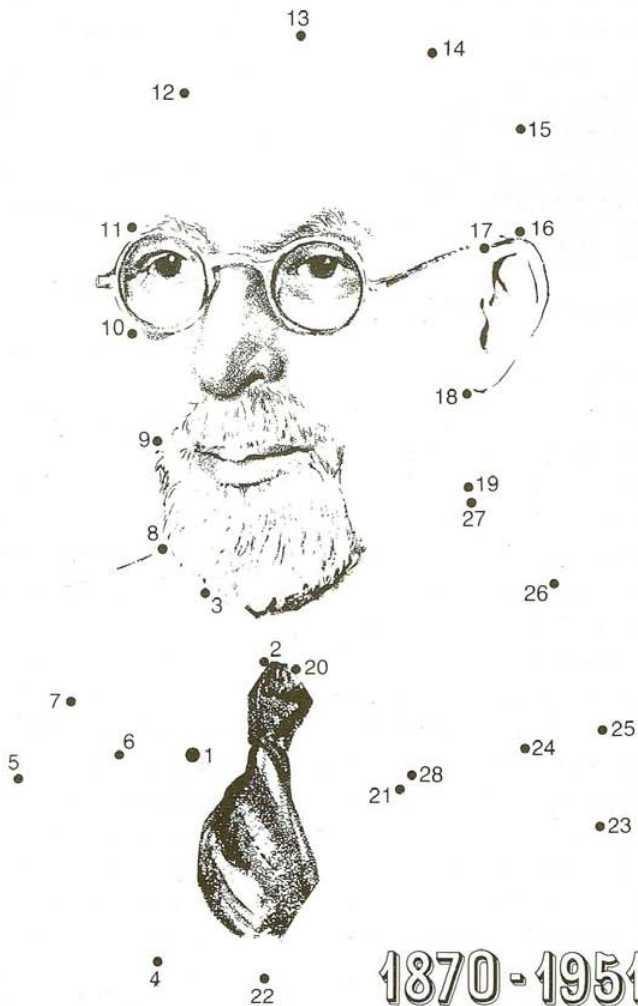
미국인 달리기 선수인 질 돗스는 중요한 경기에서 자기 다리가 남같이 무겁게 느껴질 때 극도의 피로감과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과 싸우면서 “주님, 제 다리를 올려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리를 내려놓겠습니다.”라고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그는 그 시합에서 우승했습니다.

챔피언 자질

우리들 대부분은 올림픽 시합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겠지만 영원한 진보를 믿는 말실성도에게 올림픽의 좌우명과 올림픽 정신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우리 생활의 모든 면에서 우리가 하는 일을 개선하고 최선을 다하며 걸음의 폭을 넓히고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 위하여 계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나의 젊은 친구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에 대하여 충분한 신뢰심을 갖고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성장하게 해주실 수 있도록 생활한다면 주님은 여러분의 의로운 부탁이면 무엇이든지 다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값진 인생을 살고 이웃에게 봉사하기 위해 자신을 바친다면 주님이 도와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잠재 능력을 아시며 전에는 가능하다고 꿈도 꾸지 못했을 만큼 더 빨리 더 높이 더 힘차게 달릴 때까지 발전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

조지 앨버트 스미스



1870-1951

조지 앨버트는 몹시 앓고 있었다. 의사는 당시로는 무서운 질병이었던 장티프스라고 진단하였고 이 소년에게 적어도 3주 동안은 가만히 침대에 누워 있으라고 했다.

그의 어머니에게는 조지 앨버트에게 음료수만 주어야 하며 커피를 좀 섞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는 이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대한 큰 신앙을 보였고 기꺼이 그의 계명을 따르려는 결의가 대단했다. 물론 조지 앨버트는 빨리 낫고 싶었지만 지혜의 말씀을 어기고 싶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에게 커피 대신에 물을 달라고 했고 와드 교사(당시의 가정 북음 교사)를 불러 달라고 했다.

스미스 자매의 부탁을 받은 학스 형제가 즉시 달려와서 그가 곧 나올 것이라는 약속의 축복을 주었다. 바로 그 다음날 아침 소년이 잠을 깨었을 때 열은 내렸고 조지는 훨씬 차도가 있었음을 느꼈다. 그는 몇 년 뒤에 어린이들에게 이 경험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병이 나은 것에 대하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주님이 고쳐 주셨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조지 앨버트는 외관원으로 일했고 농업 협회 및 공업 협회를 관리했으며 은행 계통에서도 적극적으로 일했다.

그러나 그의 가장 큰 기쁨은 교회와 교회 젊은이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었다.

그는 거의 40년 동안이나 소년단 프로그램에서 열심히 일했으며 소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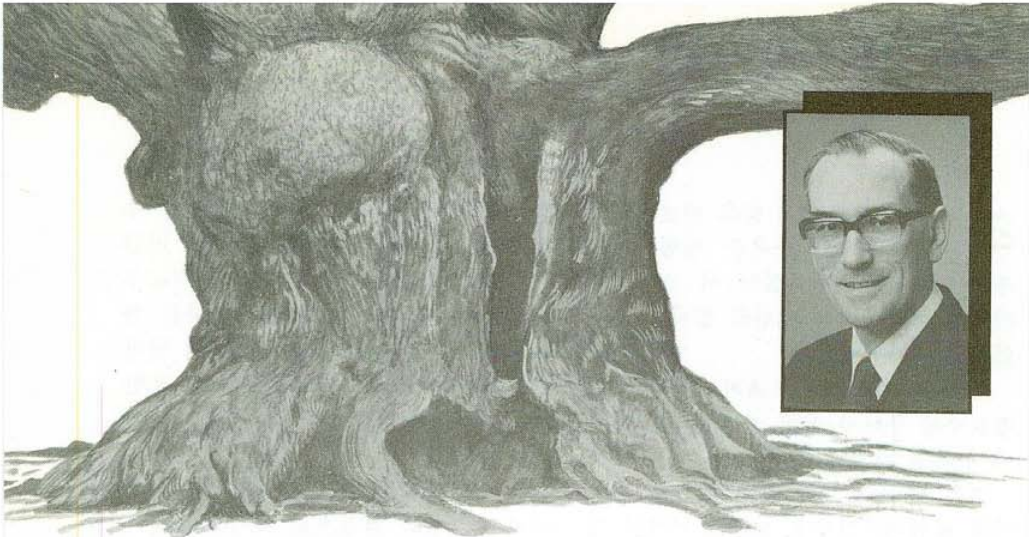
을 위해서 일한 공로로 미합중국이 주는 최고의 상인 실버 버팔로 상을 받았다. 그가 선교사로서 또한 유럽 선교부장으로서 교회에 얼마나 큰 사랑을 쏟았느냐 하는 것과 또 그가 교회에 공헌한 공적은 널리 알려져 있었다. 또한 그는 인디언들과도 특별한 우정을 쌓았다.

스미스 장로는 1903년 10월 6일에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으로 지지받았다.

그는 1909년 큰 병을 앓아 2년 이상이나 거동하지 못했다. 회복기에 접어든 어느 날 꿈에 그의 할아버지 스미스가 나타나서 그에게 이렇게 물었다. “네가 내 이름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알고 싶다.” 조지 앨버트는 이렇게 대답했다. “할아버지가 그 이름을 가지신 것을 부끄러워하실 만한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지 앨버트 스미스는 계속해서 스미스라는 이름에 존귀가 더해질 일을 했다. 그는 42년간 사도로 봉사한 후 1945년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 8대 대관장이 되었다. 그는 언제나 선의의 대사로서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좀더 잘 이해하고 좀더 나은 태도로 대하도록 시도했다. 그는 수많은 사람이 곤경에 처해 있을 때 도움을 준 위대한 인도주의자로 알려져 있었다.

스미스 대관장은 1951년 4월 4일 81번째 생일에 세상을 떠났다. 미국 대통령이었던 해리 에스 트루먼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분을 우리 나라의 위대한 도덕 지도자의 한 분으로 생각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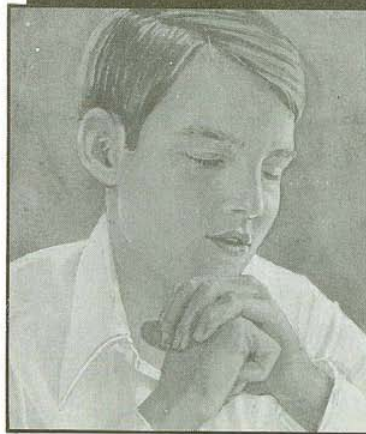


데릭 커스버트는 영국의 노팅엄에서 태어났는데 이곳은 로빈 훗의 집이었던 셔우드 숲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다. 커스버트 장로는 이렇게 회상했다. “실제로 나는 노팅엄 성 근처에 살았는데 물론 이 성은 로빈 훗 이야기에 나오는 성입니다. 지금도 노팅엄에는 행정 장관이 있으며 그는 이따금 노팅엄 시장을 보조하라는 지명을 받습니다. 수백년 동안 여러 사람이 그 직책에 임명되었습니다.

“셔우드 숲에는 큰 참나무라는 뜻의 메이저 오크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를 로빈 훗의 나무라고 부릅니다. 그 나무는 속이 비어 있으며 그 나무 안에서 약 12명이 똑바로 설 수 있습니다. 이 나무는 1500년이 나 되었으며 로빈 훗이 숨은 장소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단지 이 나무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먼 곳에서 옵니다.”

커스버트 장로와 그의 가족은 우리 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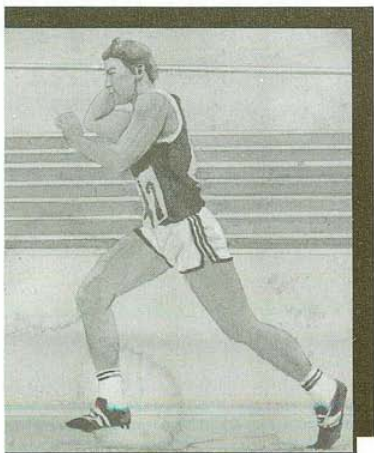
친구가 친구에게



회 개종자들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1951년 1월 어느 날 밤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우리에게는 지금이 세상 수많은 곳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훌륭한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장소는 낡은 집이었으며 선교사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쥘린 메레디스



들이 마루 밑에 침례탕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 침례탕에서 맨 처음으로 침례받은 사람들과 함께 침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개개인이 모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께서 우리가 침례받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매우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침례받을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날은 몹시 추운 밤이었지만 우리는 침례탕으로 내려갈 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침례받고 확인을 받은 뒤에 우리는 침례받고 주님의 교회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욱 따스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새출발을 하고 깨끗하고 순수하게 느끼게 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운동은 언제나 커스버트 장로가 몹시 좋아해 온 것 중의 하나였다. 그는 영양가있는 음식을 섭취하고 충분히 운동함으로써 육체를 단련시키고 훈련시켜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줄넘기가 매우 좋은 운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린 나이에 트랙 경기와 육상 경기에 대한 훈련을 쌓을 때 줄넘기를 많이 했습니다. 나는 줄넘기가 먼 길을 달리지 않고도 조깅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소년 시절에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형제들을 육상 경기에 데리고 가셨을 때의 특별한 경험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는 창던지기하는 사람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열 살된 소년으로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몇 년 뒤에 나는 학교에 다니면서 상당한 연습을 쌓은 뒤에 창던지기에서 우승했습니다. 나는 창던지기과 원반던지기뿐만 아니고 높이뛰기, 넓이뛰기, 중거리 경주에서 우승하여 빅터 루도럼(여러 시합 우승자라는 뜻의 라틴어)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후에도 여전히 노팅엄 대학교를 대표했으며 훌륭한 창던지기과 원반던지기 코우치가 되었습니다.”

제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났을 때 데릭 커스버트는 12살이었다. 그는 학교에서 방공 훈련을 하고 방공호로 내려가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의 형제는 아버지가 마당의 지하 대피소에 2층 침대를 만드는 것을 도와 드렸다. 그는 영국에서 수년 동안 계속된 오랜 배급 기간을 잘 기억하고 있다. 음식, 의복, 가구 등 모든 것을 배급받았다. 그는 한 사람의 일주일분 기본 식품을 모두 모아서 한 개의 저녁 식탁에 올려 놓았던 일을 잘 기억하고 있다. “56그램의 버터, 약간의 설탕, 얇게 썰은 육류 한 장, 제란 한 개가 있으면 운이 좋았습니다. 우리는 집에서 키운 야채를 먹고 배를 채워야 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중에 공습 경보가 울리면 많이 기도했으며 한밤중에 마당에 있는 공습 대피호로 내려가는 일이 흔히 있었습니다.”

커스버트 장로는 어린이에 관해서 강한 간증을 갖고 있다. “나는 어린이가 육신을 입고 태어나기 전에는 영으로서 하나님 면전에 거했다는 확실한 간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죄하고 깨끗한 상태로 이 세상에 오며 만일 책임질 만한 연령에 이르기 전에 죽는다면 여전히 무죄한 상태로 하나님 면전으로 돌아갑니다. ‘어린 아이는 나의 독생자로 말미암아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구속을 받았나니,’ (고리과 성약 29:46) 어른은 자기 자신을 깨끗이 하여 ‘어린 아이같이 되어 유순하고 온유 겸손’ (모사이야서 3:19)해져야 합니다.

“나는 구세주의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8:3)

커스버트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여행하면서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하면 그 스테이크에 있는 어린이들을 방문하여 킴볼 대관장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즐거움을 만끽합니다. 또한 그들에게 나 자신의 간증을 전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야기해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분은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이 기도를 통하여 그분께 말씀드리고 그분의 사랑에 얼마나 감사하는지 말씀드리기 바라십니다. 그분은 수많은 방법으로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지상에 살 수 있게 하시고 가족을 주셨고 특히 귀하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매우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지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만일 여러분이 나쁜 일을 하면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이 영원히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자신의 생명을 속전으로 주셨습니다.”

커스버트 장로는 다음과 같은 뜨거운 간증으로 결론을 맺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압니다. 나는 그가 오늘 날 하나님의 참된 예언자이신 킴볼 대관장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어린이 여러분, 항상 주님이 하실 만한 일을 하고 주님이 말씀 하실 만한 말을 하여 언젠가는 그분을 뵈고 그분이 여러분을 품안으로 맞아들이시도록 하십시오.” *



마리아는 침실 창문으로 바깥을 내다보았다. 미풍이 부는 가을날이었다. 맑게 개인 하늘을 가로질러 멀리 큰 풍차가 돌고 있었다.

그녀는 자기 새 집 주변에 전개되는 농촌 풍경을 사랑하기 시작한 것이다.

마리아와 그녀의 가족은 늘 스페인의 수도인 마드리드에 있는 아파트에 살았다. 그들은 금년에 시골에 있는 집으로 이사왔다. 마리아의 아버지는 농부가 되기 위하여 사무직을 그만 두었다.

마리아는 옛날 친구들과 정든 곳을 떠나기 싫었지만 차츰 이곳에 익숙해지고 있었다. 그녀는 탁 트인 넓은 공간과 황량한 언덕과 자기 새 집 근처의 지평선에 점점이 흠어져 있는 커다란 풍차를 좋아했다. 마리아는 가끔 벌판을 가로질러 달리면서 “이곳은 모든 것이 아름다와!”라고 중얼거렸다. 길게 땅은 그녀의 머리가 햇빛을 받아 반짝거렸고 그녀의 피부는 바깥에 자주 나와 있는 탓으로 황금빛 갈색으로 바뀌었다.

마리아와 사프란 꽃



마리아는 아버지가 이른 봄에 씨뿌리는 것을 도와 드렸다. 밭에서 구근을 하나씩 심으려면 몇 시간씩 허리를 구부리고 있어야 했다.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는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힘들게 일하는 것은 훌륭한 가치가 있다고 확신시켜 주었다.

파종기가 끝나고 나면 마리아는 풍차를 보고 즐거워하고 여름 햇빛 속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면서 여름을 보냈다. 곧 그는 조용하게 땅 밑에서 자라는 농작물에 관하여 잊게 되었다. 그러다가 빛나는 10월 어느 날 그녀의 아버지의 밭에 자색의 사프란 꽃이 만발하게 되었다.

마리아는 기뻐서 외쳤다. “아빠, 이렇게 화려하고 많은 꽃은 생전 처음 보았어요. 그렇지만 아빠, 누가 사프란 꽃을 살까요? 여기서 자라나는 농작물은 대부분 식량으로 쓰이는데요.”

아빠는 이렇게 안심시켜 주었다. “마리아, 우리는 먹을 것을 재배하고 있다. 추수기가 지날 때까지 기다리면 엄마가 우리에게 맛있는 것을 만들어 주실거야.”

마리아는 마을 사람들이 밭의 농작물을 추수하는 것을 지켜 보았다. 그들은 큰 바구니로 사프란 꽃을 운반했다. 오후가 되어서 마리아는 어머니와 마을 여자들과 함께 모여서 꽃을 분류할 때 깜짝 놀랐다. 여인들이 작은 자색 꽃술에서 붉은 색으로 빛나는 3개의 암꽃술을 뽑아내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 암꽃술을 조심스럽게 바구니에 담고는 망가진 꽃은 마루에 던져 버렸다.

마리아는 꽃더미로 가서 한 개를 집어들었다. 이 꽃이 얼마나 아름다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니 눈물이 나왔다.

이제는 망가져서 땅에서 시들고 있는 것이다.

마리아는 그렇게 아름다운 꽃이 망가지는 것은 보기 싫다고 생각했다. 마리아는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어머니와 다른 여자들과 함께 일하는 탁자에 앉았다. 바구니에는 붉은 암꽃술이 가득 찼고 그것을 짙은 남자들이 갖고 갔다. 다시 빈 바구니가 들어오고 마리아와 어머니는 어두어질 때까지 일했다.

그 다음날 아침 마리아는 분류된 그

“꽃이 자랄 때는
사프란 꽃이지만
우리가
그 암꽃술을
떼어 내서
말리면
사프란이 된단다.
이 사프란은
스페인의
황금과 같단다.”

암꽃술이 햇볕에 말리기 위하여 시렁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관심있게 이 추수 과정을 지켜 보았다. 스페인 하늘의 뜨거운 태양은 아버지가 만족할 만큼 암꽃술을 건조시켰고 아버지는 시장에 내가기 위하여 포장하기 시작했다.

마리아는 아버지가 트럭에 바구니를 실는 동안 트럭에 기대어 있었다. “아빠, 나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을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꽃은 다 뜯어 냈는데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버지는 일손을 멈추고 다정하게 딸을 내려다보았다. “너는 그 예쁜 꽃은 다 없어지고 남은 것이라고는 이 작고 못생긴 말라비틀어진 꼬챙이밖에 없어서 슬픈게로구나.” 하시면서 바구니에서 딱딱해진 암꽃술 한 개를 꺼내서 마리아에게 보여 주었다.

마리아는 아빠의 시선을 피하려고 눈길을 떨구면서 “그래요, 아빠.”라고 대답했다.

“마리아야, 이것은 사프란이란단다.” 아버지는 손에 쥐고 있는 암꽃술을 바라보았다. “꽃이 자랄 때는 사프란 꽃이지만 우리가 그 암꽃술을 떼어 내서 말리면 사프란이 된단다. 이 사프란은 스페인의 황금과 같단다.”

“나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 바짝 마른 것을 어떻게 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버지는 이렇게 설명해 주었다. “사프란은 이 세상에서도 몇몇 군데에만 자란다. 이것을 심고 추수하는 일은 매우 힘들며 지금 너도 알다시피 모두 손으로 해야 한다. 0.45킬로그램(1파운드)의 사프란을 만들려면 6만 4천 개

의 꽃에서 암꽃술을 떼어 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귀하고 희귀한 것이지.”

마리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녀는 이 모든 일의 가치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이것이 사프란으로 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나요?”

“오랜 세월 동안 사프란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단다. …… 그리스 사람들은 향료로 썼고 수많은 나라에서 임금의 의상에 입히는 황금색 물감으로 썼단다.” 말씀하시는 아빠의 눈이 빛났다. “이 암꽃술 몇 개를 집어서 어머니에게 갖다 드려라. 어머니가 이 사프란을 잘 사용하는 방법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실거야.”

마리아는 이 암꽃술을 어머니에게 갖다 드리고 그것을 가루로 만드시는 것을 지켜 보았다. 어머니는 아주 조심스럽게 그 가루 대부분을 저장하셨지만 저녁 식사 때 사용하려고 아주 소량을 남겨 두셨다.

그날 밤 모든 가족이 부엌에서 침을 삼키며 기다렸다. 닭, 새우, 대합 조개, 야채 등을 잔뜩 다져 넣은, 김이 무럭무럭 나는 큰 파엘라 요리가 자기 앞에 놓여지자 마리아의 얼굴은 빛났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은 사프란으로 맛을 낸 밀에 깔린 쌀밥이었다.

“자, 마리아야, 이제는 왜 우리가 그 꽃을 모두 뺐는지 알겠지. 이것은 너와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 맛있는 양념의 맛을 즐길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란다.”라고 아버지가 설명해 주었다.

마리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스페인의 황금으로 물들인 쌀밥을 포크로 뜨면서 환한 미소를 지었다. *

